

# 새 감염원 광주고시학원, 역시나 마스크 미착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확산 키워... 첫 확진 후 4명 추가 이용자 대부분 40~60대, 1~2일 방문자 자진신고·검사 당부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으로 떠오른 광주고시학원의 방역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일부 시민들의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방역수칙 미준수가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재앙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웅섭 광주시장은 8일 브리핑에서 "강의실 입실 전에는 발열 체크를 했으나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강의실 내 거리 두기, 에어컨 가동 시 창문 열기 등

방역 수칙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강사를 비롯한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역학조사팀에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감염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시학원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곳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40~60대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광주고시학원 확진자 5명도 40~60대이다.

방역 당국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광주고시학원(4층)이 입주한 6층 전체 건물을 폐쇄하고 확진자 중심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첫 확진자인 117번은 강의실에서 에어컨 바로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돼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는 3개 층이 고시학원, 1개 층이 일반 학원, 1개 층이 휘트니스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고시학원 외 다른 학원에서는 대체로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진자들은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확진자들이 학원에 다녀간 1~2일 방문자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광주고시학원에서는 지난 6일 첫 확진자(117번)가 나온 이후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고시학원은 아직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연령대가 광주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들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동동 광주고시학원에서 다수의 수강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 건물이 폐쇄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난리난 전남도청

8일 오후 50대 남성인 영암군 금정면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도가 비상에 걸렸다.

전남도 공무원들이 금정면장과 주말인 지난 4일 골프장에서 밀접접촉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골프 라운딩을 함께한 공무원 3명이 소속된 도청 세정과·농업정책과·일자리정책과 등 3개 부서 사무실은 이날 오후 3시 폐쇄조치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80여명의 해당 부서 공무원 전원도 같은 시각 퇴근 조치됐다. 이들 공무원은 모두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고, 이상

없는 직원들만 출근이 허용된다. 전남도는 재택근무 등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행정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전남에서는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 검사를 대기 중인 검체가 밀려 있어 이들 공무원이 모두 검사를 받기까지는 최소 2~3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악의 경우 이들 공무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매뉴얼에 따라 도청 청사가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도 공무원 3명, 확진판정 영암 금정면장과 골프라운딩 3개 부서 폐쇄 조치...비상상황 돌입 속 행정공백 불가피

전남도 공직자들의 행태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부터 광주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비록 주말이지만 무더기로 골프를 치는 행태가 결과적으로 바람직했느냐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들이 틈만 나면 "광주와 전남은 같은 생활권이다. 코로나 19가 노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만큼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마친 김 지사는 기자들에게 "(문제가 된) 공무원들을 엄

중히 다스리겠다. 도청 공백이 빚어지지 않고 코로나 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30년 확진자로 분류된 금정면장은 지난 1~2일 광주의 코로나 19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광주고시학원 야간반 수업을 들었다.

지난 3일부터 면사무소, 식당, 처가, 골프장, 음식점, 커피숍, 목욕탕 등을 다니다 다수 공무원과 주민들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내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QR코드 도입...광주시 예식장내 뷔페 음식점 집합 제한

앞으로 전국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되고,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광주에선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집합을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이용자와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코로나19 공기감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WHO "확정적이지는 않아...증거 수집·해석 필요"

베네치아 알레그리치 세계보건기구(WHO) 감염통제국장은 지난 7일 저녁(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증거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WHO가 조만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식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염을 멈추려면 종합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했다. 그간 WHO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큰 호흡기 비말(침방울)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공기 감염은 에어로졸 등을 생성시키는 의료 시술 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어로졸은 수분 증발로 가벼워진 미세한 침방울을 머금고 공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떠다니는 기체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WHO는 말하기와 기침, 재채기로 튀는 침방울 및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물체 표면에 떨어진 침방울을 감염의 두 가지 경로로 보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최근 WHO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코로나 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확진자 동선 꼼꼼히 확인하세요" 광주시, 자치구별 확진자 동선·방역 현황 공개

광주시가 자치구별로 확진자 동선 방역 현황을 공개하고, 시설 방문·이용 가능 여부 등도 안내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 19 대응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방역 현황'에서 확진자 동선별 방역 상황을 안내한다. 기존에는 확진자 일련번호 순으로 동선이 공개되다 보니 시민이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일련번호가 아닌 자치구별로 확진자 방문 장소를 분류해 한 눈에 동선 포함 장소와 시설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상호, 주소, 소독 여부, 방역일, 관련 확진자 번호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특히 소독이 완료된 곳에 대해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다.

상인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피해를 줄

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곳은 상호를 익명으로 하고,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방역 14일 이후에는 공개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초기에는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 중소기업 등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동선 공개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 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 산행안내

7월11일(토)  
▲광주호산회 7월11일(토) 순창 송대봉 재계산 구름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12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7월12일(일) 충북 제천 월악산 국립공원 (포암산 961m, 만수봉 985m), 영주체육관 05:20, 무등경기장 05:40, 동광주휴플러스 06:0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1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15일(수) 전북 장수 팔공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18일(토)  
▲광주곰팡이산악회 7월18일(토) 지리산 반야봉 삼도봉 뱀사골, 봉선동롯데마트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곰팡이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7월22일(수)  
▲광주정복산악회 7월22일(수) 전북 무주 남덕유 토목동계곡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 07:30 \* 다음카페 광주정복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7월25일(토)  
▲광주호산회 7월25일(토) 함양 영취산 부전계곡,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신 안 222-8171 ·용 북 433-1503	·문 흥 266-1960 ·안 신 571-7658 ·우 산 433-1503	·북광주 525-3761 ·오 지 266-7601
동구	·남 광 675-5530 ·중앙 222-9054	·동 명 222-9054 ·충 정 222-8171	·동 부 225-6001
남구	·남 부 675-5530 ·송 하 675-6605	·백 은 651-1833 ·진 일 671-7276	·봉 선 675-5530
서구	·광 천 382-5788 ·화 정 369-1625	·상 무 372-2352 ·치 평 376-6511	·서광주 369-1625 ·공 임 603-0311
광산구	·운 남 952-1687 ·하 남 955-0451	·월 곡 959-1920 ·광 산 944-0444	·침 단 973-2900